

【2】 크고 작은 역사적 발자취

1914년 일제가 우리나라 전 국토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대대로 이어 내려온 각 마을의 행정구역 명칭을 합병하여 저희들 마음대로 이름을 짓고자 할 때 온양의 유림들과 덕망있는 유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강력한 반대시위를 벌이고 항의각서를 만들어 투쟁하는 등 애국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에서는 단 두곳의 지명만을 바꾸게 하고 모든 옛 동리 지명은 그대로 지킬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당시 아산현은 198개리를 72개리로 지명 변경 과정에서 46개나 지명을 변경했고 신창현은 184개리중 39개로 지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28개의 지명을 저희들 멋대로 바꾸었다.

(온양군의 지명중 변경 2개 리는 용화리 = 용정리+상화리이고, 호산리 = 내호리+외호리이다)

다음은 군폐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913년 당시의 온양군의 치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옛 온양군의 건치연혁

본래는 백제의 탕정군이었는데,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후, 문무왕 초기에 탕정주로 격상시켜 총관을 두었다가 후에 주를 폐하고 군으로 복귀시켰다.

고려 초에 온수군으로 개칭했다가 현종 9년(1018년)에 천안부에 소속 시켰으며, 명종 2면(1172년)에는 온수현을 다시 분리시켜 감무를 두었다.(※ 현령을 둘 수 없는 작은 고을에는 감무를 두었음.)

조선 태종 14년(1414년)에는 신창현과 병합하여 온창현이라 개호 하였다가, 동왕 16년(1416년)에 다시 분리하여 온수현이라고 했으며, 세종 24년(1442년)에 왕이 신병 요양차 온천에 행행하여 온양군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계미년(숙종 29년 : 1703년?)에 군수 이만추가 충청도 좌영을 해미로부터 온양으로 이설했다가 임진년(숙종 38년 : 1712년?) 3월에 이르러 군수 한이원 재임시 충청도 좌영을 해미로 이송하였다.

고종 32년(1895년)에 전국을 23부 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온양군은 공주부 관할의 22개군 중의 하나가 되었다가, 다음 해인 고종 33년(1896년) 8월 4일에 이르러, 태종 13년(1413년)부터 시행되어온 조선도의 행정구역을 분할하여 13도로 개편함에 따라 온양군은 충청남도 관할의 37개군 중에 4등 군이 되었다.

한일합병 후에,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14년 3월 1일 아산군에 통합되었다. 1914년 군 폐합 당시의 옛 온양군 관할지역은 온양면(12개리), 송악면(13개리), 탕정면(10개리), 배방면(12개리) 4개면 47개 리로 개편되었다.

다음은, 1913년 이전의 옛 온양군의 행정구역과 1914년에 개편된 신 행정구역을 상호 대비하여 조건하기 편하도록 만든 일람표이다.

▷ 옛 온양군의 행정구역개편상황 대비표

1913년 이전의 舊 행정구역	1914년 개편된 新 행정구역	
------------------	------------------	--

郡	面	里	里	面	郡	
온양	서면	온천	온천	온양	아산	
		하화(일부)				
		하화(일부)				
		상화	용화			
		용정				
		관교				
		신인	신인			
		입암				
		문산				
		초사	초사			
		개흥				
		흥기				
신창	대동	기산	기산	온양	아산	
		성산				
		신평				
		지라				
		풍기	풍기			
		청당				
		이북면	선문			
		서면	시안			
		장재				
		흑석	방축			
		하점양(일부)				
		방축(일부)				
온양	서면	득박(일부)				
		신기	실옥			
	읍내	실옥동(일부)				
		상리	읍내			
		중리				
		하리				

1913년 이전의 舊 행정구역			1914년 개편된 新 행정구역			
郡	面	里	里	面	郡	
온양	읍내	경전		온양	아산	
		송정	읍내			
		동변				

		유기촌				
		성내				
		좌부				
		괴화	좌부			
		대교				
		신리				
	남하	법곡	법곡	송악	아산	
		가무(일부)				
		가무(일부)	장재			
		장재				
		역촌	역촌			
		오미				
		외암	외암			
		구산				
		강당				
		학동				
		신평	강당			
		석우				
		사곡				
		곽곡				
		평촌				
		복구				
		회화	평촌			
		월굴				
		월라				
		궁평	궁평			
		방산				
		마곡	마곡			
		침곡				

1913년 이전의 舊 행정구역			1914년 개편된 新 행정구역			
郡	面	里	里	面	郡	
온양	남상	유곡		온양	아산	
		사기				
		심곡	유곡			
		신성				
		동화	동화			
		백학				

		장재				
		영봉				
		상서				
		중서				
		송학	송학			
		갈곶				
		거산				
		구만	거산			
		성동				
		강장				
		지라	강장			
		인아				
		종곡	종곡			
		히목				
		수곡				
		금계	수곡			
		명곡				
신창	남하	외덕암				
온양	이북	용두				
		수현				
	원남	산곡	용두			
		대중(일부)		탕정	아산	
아산	서면	창복				
		정좌산	명암			

1913년 이전의 舊 행정구역			1914년 개편된 新 행정구역			
郡	面	里	里	面	郡	
온양	일북	외금		탕정	아산	
		행승	명암			
		명암				
		갈산	갈산			
		내금				
		여사				
		매곡				
		신평	매곡			
		가소지				

		산직				
		계곡				
		내호				
		외호	호산			
		신대				
		성북				
		동산				
		덕지	동산			
		입석				
		구영				
		수청	구령			
		오류동(일부)				
		신리				
		소신리	신리			
		구미동(일부)				
		모종(일부)				
		신흥	모종			
		권곡(일부)				
		권곡(일부)	권곡			
		모종(일부)				
		모산				
		오류동(일부)	공수	배방		
온양	이북					

1913년 이전의 舊 행정구역			1914년 개편된 新 행정구역			
郡	面	里	里	面	郡	
		오산				
		갈동	공수			
		공수				
		북수				
		서수				
		월천	북수			
		창대				
		이천				
		갈매	갈매			
		자우				
		회룡				
		탑동	회룡			
		오리				
온양	동상			배방	아산	

		무 학(일부)					
		세출(일부)					
		세출(일부)					
		무 학(일부)	세출				
		의식					
		초산					
	동하		휴대			휴대	
			정산				
			세교			세교	
			상리				
		송성					
		운성					
		사오개					
동상		송곡	장재				
		연동					
		소연동					
		장재					
천안	서면	송곡(일부)					

1913년 이전의 舊 행정구역			1914년 개편된 新 행정구역				
郡	面	里	里	面	郡		
온양	군내	수철	수철	배방	아산		
		동평					
		명막					
		곡촌					
		상촌					
		매곡	중리				
		신대					
		일현					
		중리	신흥				
		하리					
저원							
흑암							
신흥							
은곡	신흥						
송현							

		감탁				
		남리				
	이북	판교	남리			

2. 온천과 왕실

온천은 치병과 휴양에 뛰어난 효과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찾아다녔으며, 특히 왕실과 고관들의 행차가 빈번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기에는 국가에서 이미 발견되어 있는 온천에다가 탕설이나 옥사를 지어 기유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한편, 입욕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세종 20년에는 전국의 온천을 탐색하여 보고하도록 어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온양온천은 한양에서 200여 리에 불과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선역대의 국왕과 왕비 및 왕자의 행차가 빈번하여, 한양에서 온양 온천에 이르는 연도제읍에서는 막중한 부담이 되었다.

영조 26년(1750년) 9월 12일에 왕이 이궁을 출발하여 온양온천에 幸行하였다가 9월 28일 환궁하기까지 16일 동안에 충청도의 영접차비는 다음과 같았다.

충청도 도차원인 충주 목사가 총지휘관이 되어 각참의 도차원을 지도 했으며, 미가가 직산에 당도하기 수일 전에 홍주목사가 직산참의 도차원이 되어, 직산현감, 영춘현감, 염포현감, 예산현감, 청안현감, 단양군수, 한산군수, 연산현감, 신창현감, 음성현감, 청산현감, 문의현감, 전의현감, 옥천군수 등 14개 읍의 수령을 각도차원으로 차출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미가를 영접하였다.

다음의 천안참 도차원으로는 청주목사가 차출되어 천안군수, 연산현감, 진잠현감, 음성현감, 신창현감, 은율현감, 예산현감, 석성현감, 정산현감, 서산군수, 보은현감 등 11개 읍의 수령을 각도차원으로 거느리고 영접의 준비를 갖추었다.

마지막 목적지인 온양참 도차원으로는 청풍부사가 차출되어, 온양군수, 괴산군수, 면천군수, 연기군수, 연산현감, 신창현감, 해미현감, 전의 현감, 진천현감, 부여현감, 목천현감, 공주판관, 회덕현감, 서산군수, 결성현감, 금정찰방, 제천현감, 태안군수, 홍산현감, 영동현감, 아산현감, 청양현감, 연출현감, 덕산현감, 보령현감, 연원찰방, 성환찰방, 회인현감 등 28개 읍의 수령을 각도차원으로 차출하여 어가영접의 만반 준비에 임하였다.

각참의 각무차원으로 충청동 관하의 수령들이 총동원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 1명이 2~3개 참의 차원을 겸임하기도 했으며, 연도의 백성들은 도로부역, 교량가설, 청소, 물자조달 등으로 고초가 지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관할구역의 규모로서는 ‘현’에 불과한 온양을 ‘군’으로 승격시키는 특전을 가지게 된 것은 세종 24년(1442년)부터인데, 그것은 오로지 어가의 온천행행의 덕택이었다. 그리고, 3년마다 시행되는 식년(자 묘 오 계 유) 무과의 향시도 9년마다 한 번씩은 온양에서 시행하게 된 것도 이 온천의 덕택이었다.

온양에서 시행되는 무과의 향시는 식년시와 별시인 경우에 좌도출신 12인, 우도출신 13인을 각각 합격시켰으며, 대증광시인 경우는 좌도에서 13인 우도에서 14인을 각각 합격시켰다. 그리고, 국왕이 온천에 임행할 때는 특별히 그 기념으로 과거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또한 온천의 혜택이었다. 이와 같은 거국적인 행사가 자주 있어온 온양은 자연히 유흥업, 숙박업, 요식업 등이 번창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국왕이 온양온천에 임행한 기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세종대왕의 온행

세조대왕은 안질 치료차 왕 15년(1433년) 1월에 온양온천에 행행 하였던가 완치가 되지 않았던지 다시 청주의 수정으로 행행하였다. 그 후에도 22년(1440년) 3월과 24년(1442년) 3월에 또 온양에 행차하였다. 이 때에 ‘온수현’을 ‘온양군’으로 승격시켰다.

2) 세조대왕 및 왕후의 온행

세조 11년 3월초 1월에는 온양온천에 주필하였는데, 3월 4일에 갑자기 온궁의 앞뜰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므로 왕이 그곳을 파게했더니, 맑고 차가운 물이 팔팔 솟아 나왔다. 이에 왕은 더운 온천수가 솟아 나오는 온정 옆에서 차가운 물이 솟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 여겨서 그 샘을 신정이라 하였으며, 이것이 상서로운 길조라 하여 전국팔도의 수령 방백들은 치하하는 표문을 왕께 올렸다. 세조는 이 전후 사실을 임원준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 ‘주필신정비’라 제하고 비석에 새겨서 기념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지금의 온양관광호텔 구내에 보존된 ‘신정비’이다.

이에 앞서, 세조 5년(1459년)에 아산현을 폐읍하여 온양군, 신창현, 평택현 등 세 고을에 분속 시킨 일이 있었는데, 아산출신 판중추부사 김구 등이 아산현을 복구해 줄 것을 누차 건의했으나, 왕은 좀체로 윤허하지 않았다. 마침 왕이 온양온천에 행행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아산현 복구를 신소하였더니, 왕은 좌우에 따라붙는 행신들을 보내어 현지조사를 하게 한 다음에 아산현을 복구시켰다.

세조 14년(1468년)에는 왕과 왕비(정희왕후 윤씨)가 동행하여 온천에 다녀갔고, 이해 9월에 왕은 중환으로 붕어 하였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세조는 불치의 악성피부병 때문에 온천행행을 자주 했지만 완치하지 못했고, 마침내 그 병 때문에 붕어 했다고 한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도 재위 1년 만에 붕하고, 성종이 즉위하였다. 성종 7년(성화 12년, 1476년) 2월에는 세조의 왕비와 덕종의 왕비(소혜왕후 한씨)가 함께 온양온천에 가행했다. 정희왕후 윤씨가 7년 만에 온천에 행차하여 보니 신정은 변함이 없었는데, 세조 11년에 세운 신정비는 1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풍마우세하여 각자가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이것을 본 정희왕후는 세조대왕을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즉시 신정비를 중각하도록 명하여, 월산대군, 덕원군, 정현조 등이 공사를 주관하고, 임원준이 지은 ‘주필신정비’를 이숙감의 글씨로 중각하여 공사를 완료하니, 이 때가 성종 7년 3월이었다.

3) 현종대왕 및 왕후의 온행

조선역대의 군왕 중에 온양온천을 가장 좋아한 분이 현종이었으니, 모두 5회나 행차하였으며, 이 때에 온양에서 과거를 실시하여 인재를 선발하였고, 대신들로 하여금 초야에 묻혀 있는 숨은 인재를 추천하게 하는 한편, 효자와 열녀를 찾아내어 포상하였다.

현종 6년(1665년)에 왕이 온행하여 과거를 시행하였는데, 여기서 문과 7인과 무과 200인을 선발하였으며, 대신 이경석의 추천에 의하여 온양지방의 숨은 인재였던 조이후에게는 교관을 특제하고, 조이중에게는 침랑 벼슬을 특배하였다. 그리고 효자로 이름난 향현 조상우의 정려를 명하였으며, 또 군내의 선비들이 윤대형을□가행순효□로써 추천하니, 두직참봉을 특제했다.

그 다음 해인 현종 7년에도 온행하여 문과 5인, 무과 90인을 선발 하였으며, 다음 해 현종 8년에는 자전이신 인현왕후 장씨(효종의 왕후)를 모시고 온행하였고, 또 현종 9년에는 왕 자신이 온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종 10년(1669년) 3월에 자전이신 인현왕후 장씨와 중궁전인 명성왕후 김씨(현종의 왕비)와 함께 온행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향유 이지강은 현종에게 상소하여 아산지방의 네 효자와 열녀 한 명을 표창해 주기를 제의하니, 이를 윤허하여 효자 김효일과 권대평에게는 ‘의금부도사’를 증직하고, 홍절에게는 ‘호조좌랑’을 증직하였으며, 이덕민은 인산서원에 배향하게 했다. 그리고, 병자호란 때

오랑캐에게 잡혔다가 절개를 지키고 죽은 막개(김석복의 처)에 대하여는 열녀정문을 명하였다.

4) 숙종대왕의 은행

숙종 43년(1717년) 정유월에 왕이 은행하여 과거를 실시했는데, 문과 7인과 무과 200여인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왕이 대신에게 하교하기를, 충청도내에서 경학이 가장 뛰어난 선비를 추천하라 하므로, 당시의 재상이었던 권상하는 자기의 문인인 윤혼을 추천하니, 왕이 그를 명옥참봉에 제수했고, 2년 후 그는 문과 급제하여 지평에 오르게 되었다.

5) 영조대왕 부자의 은행

영조 26년(1750년) 경오월에 왕이 은행하여 과거를 베풀고, 문과 7인과 무과 200여인을 선발하였다. 영조 36년(1760년) 경진 8월에 영조의 세자인 장헌세자(정조의 생부)가 온양온천에 임행하여 단을 만들고 활쏘기를 하였는데, 그 때에 날씨는 더웠으나 주위에는 휴식할 만한 그늘이 없었다. 이에 세자는 온양군수 윤염에게 명하여 괴목(느티나무) 세 그루를 온궁옆에 심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35년이 지난 정조 19년(1795년) 을묘 9월에 왕은 생부인 장헌세자(사도세자)가 궁술을 익혔던 사대에다가 비각을 건립하고, 석비 전면에는 정조의 어필로 ‘영괴대’라 쓰고, 비석의 후면에는 정조 어제의 ‘영괴대명’을 전 온양 군수 윤혼의 아들 윤행임으로 하여금 글씨를 쓰게 했다. 이 ‘영괴대’는 현재 온양관광호텔 구내에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3. 일제치하의 항일투쟁

1919년 3월 1일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초기의 삼일독립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온양 지방에서는 3월 11일 온양공립보통학교 생도 일동이 교정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교내 시위를 했는데, 교장의 설론을 듣고 각자 귀가하였다. 이 때 온양현병대에서 출동하여 학교 옆에 임시헌병주재소를 마련한 다음, 만세주동학생을 구타하여 돌려보냈다. 그 다음 날인 3월 12일 오후 1시경에 통학교학생들이 또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다가 현병대에게 제지되어 해산하였고, 주동학생 5명이 연행되어 5일간의 구류에 처해졌다. 이에 분개한 보통학교 학생 100여명과 천주교 및 천도교 신자들이 합류하여 3월 14일에 독립선언서를 살포하면서 대규모의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무장현병대의 출동으로 해산하였고, 주동자 20여명이 검거되었다.

4. 일제의 침략위주 식민정책

일제가 조선에 실시한 경제정책은 철저한 식민지 수탈 정책이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강제 공출제도를 마련하여 농산물을 헐값인 ‘공정가격’으로 착취하였으니, 1944년에는 총 생산량의 63.8%에 해당하는 약 1,196만석을 공출시켜 일본으로 실어갔다. 따라서 한국인은 조, 옥수수, 콩깻묵 등으로도 부족하여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기에 이르렀으며, 곳곳에 유랑민이 속출하여 고향을 등지고 만주 땅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극심한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일제 말기의 온양 지방 주민들의 생활상과 일본인들의 탄압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화 18년 2월경에 있어서 당시 온양읍의 상황을 살펴보면, 읍장은 일본인 후등안치라는 사람이었고,

서무주임 견엽이라는 사람과 부읍장 조선인 박명진, 그리고 직원 42명이 온양읍 행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온양읍 직원들의 근무상황은 매일처럼 상부관청인 아산군과 충청도청 직원들의 빈번한 출장으로 이들과 같이 각 리에 나가 각종 독려를 주임으로 하여, 아침에 출근한 직원들은 오후만 되면 군청 각과에서 출장 나온 10여명과 합세하여 읍직원 2~30명이 각 리에 출장하게 되는 고로 오후에는 항상 읍사무소가 공백상태였었다.

그리고 온양읍 사무소의 예산형편을 보면, 비교적 예산이 풍부한 편이었고, 일본이 2차대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한 소위 노무동원에 있어서의 인력공출이라는 명목과, 역시 전쟁수행용으로 착취한 식량 공출 및 각종 공출(우육의 공출도 포함) 등의 착취수단을 강행하는 일에는 항상 모든 경비를 보조하여 자출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우육공출이나 노무동원, 한해대책 등 당시의 일본인들이 자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제, 육우공출에 있어서는 매년 봄에 육우 2백여 두의 공출지령을 내리고 이를 강제로 시행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형편에 비해 대단한 공출량 이었다.

둘 제, 노무동원에 있어서는 당시 아산군과 충청남도예 총동원과를 설치하고 각 읍면에는 노무동원계를 설치하였는데, 읍면의 노무동원계에는 주무자 1명과 보조원 1명씩을 두어 매월 1회 이상 100명 내외의 인원을 차출하여 2차대전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그런데 노무동원에 얹힌 온양지방의 당시 상황을 보면 마치 주민들과 공무원들과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읍면 직원들이 노무출동지령을 당사자의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촌락에 출장을 가게되면 어느 틈에 노무동원 대상자인 젊은이에게 그 가족들이 사실을 알려져서 피신하게 하자, 읍면 직원들은 야밤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집을 급습, 강제로 끌고 가는 일까지 벌어지곤 하였다.

셋 제, 한해대책에 있어서는 늦봄부터 가뭄이 시작하여 모심기가 늦어질 것이 예상되면 요즘처럼 도랑 파기 등을 하여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곤 했는데, 이 때는 부락민들을 강제로 총 동원시켜 수로를 몇 km씩 만들어 수천 町步에 달하는 모내기를 마치게 하였고, 심지어는 풍기리 상류의 사금과 관토로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전기양수기를 동원하여 물을 퍼내어 풍기, 권곡, 신리 3개리 일대의 논에다 대기까지 하였으며, 7월 초순까지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때에는 모든 논에 지금처럼 대파를 실시했다. 종자로는 메밀, 수수, 쭉, 야채, 산나물 등을 심어 재배토록 하였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 흙덩어리가 호미 등으로는 깨어지지 아니하여 대파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끝내는 어떠한 강제수단을 적용하여서라도 대파를 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7월 말경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대파했던 작물이 두어 치나 자랐는데도 이를 뽑아 없애고 그 자리에 모를 심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모를 공급하는 수송수단이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 우마차의 동원관리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어서 경찰로 하여금 농우 동원을 일체 관장하고 모를 심는 일에 우선하도록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농촌에는 노력동원 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되어 농촌 인력이 부족하게 되므로 온양읍내의 상업종사자 등이 모심기에 강제로 총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심어진 모는 앞서 대파하던 메밀, 수수 등에서 생긴 진딧물 등 해충 때문에 모는 잘 자라지 않고 자연히 수확량도 떨어지게 되어서 가을 추수기에는 형편 없는 양의 농작물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이 당시의 온양읍민들의 동태를 보면, 매일같이 식량배급을 통해 식생활을 영위해야 했기 때문에 70~80명씩 줄로 늘어서 식량 배급 전표를 받아 지정된 배급소에 가서 식량을 타게 되어 있었으므로 각 사무소에는 식량배급전표를 받기 위해 몰려드는 많은 주민들로 항상 붐비기 마련이었다. 그

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이었던 낫그릇, 화로, 교량난간의 쇠붙이 등은 모조리 거두어들여져 전쟁에 동원되었다.

5. 조국광복과 온양

광복의 기쁨을 맞는 아산군은 당시 군수인 조선인 정홍섭을 중심으로 시국수습 대책을 위한 회의들을 빈번하게 열고, 주민들에게는 부화뇌동 하지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질서유지를 당부하는 등 사회 혼란 방지에 나옴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무렵 온양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소요도 없었으며, 대신 가끔씩 무엇을 소각하는지 모르나 경찰서 뒷마당에서 문서를 태우는 듯한 연기가 솟아오르곤 하였다.

그리고 온양읍 실옥리에 있었던 육군병원 온양 분원에는 당시 약 50여 명의 소대 병력이 주재하고 있었으며, 재향군인들이 각 기관에 약 천 명씩 있었고, 시내에도 수천 명이 있었던 바 이들의 동태 또한 별 움직임이 없었다. 육군병원에 소속된 조선인 지원 병사들에게는 병원장이 말하길, ‘당신들의 나라가 독립이 되었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모두 집으로 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이영진, 이성규, 박명진 등이 주동이 되어 아산군청에다 ‘치안유지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들의 활동과 관련된 온양에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일부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수습대책을 논의하여 자치회를 조직, 자치회 탄생보고 및 조선독립 경축식을 온양극장에서 개최함.
- 온양읍 자치회(온양읍사무소내 설치)에 육군병원 일본군들이 습격하여 숙직원을 구타하고 자치회 명단과 선전물 등을 파손하고 온양 자치회가 사용하는 목총을 육군병원으로 반납하라는 행패를 부림.
- 아산군 자치회에서는 다음 날 온양 자치회의 일본군 난동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온양읍 자치회 간부들이 당시 하라다(원전) 온양 경찰서장을 방문하여 엄중 항의함. 이어서 자치회 간부들은 경찰서장과 일본인 육군병원장(일본 육군 소위)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함. 이 때의 회의 내용으로, 자치회 측은 일본군의 만행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청하였고, 일본측은 담배 배급을 요청하였고, 육군병원 병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조선 내에서 아산지방이 가장 강경한 자세로 일본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고, 조선의 독립을 경축하는 도가 지나칠 정도이니 좀 누그러 달라, 서울도 아산에 비교가 안될 만큼 조용한 편이다, 그러니 자치회가 나서서 지금의 공포분위기를 달래 주기를 바란다.’라고 간청하였음.

이 무렵 일본군에 징집되었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당시 치안 유지회 소속아래 기동대를 조직하여 지역 질서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자 아산군 선장면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지방의 좌익진영이 합세하여 치안 유지회 기동대의 본부를 습격하여 이들을 강제로 해산하도록 하였다. 기세를 얻은 좌익 진영은 온양 경찰서마저 접수하고 아산 군청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해서 우익 진영의 모든 집회를 폭력과 난동으로 방해하는 한편, 아산지방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좌익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에 우익 진영의 인사들은 온양읍 사무소에 후일의 독립축성회의 모태가 되는 우익진영 단체를 조직한 후, 홍순철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기동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른다.

재조직된 우익 진영의 기동대는 온양 경찰서를 습격하여 재접수 하는데 성공하니 기세가 눌린 좌익

진영은 당시 온양 병원을 본거지로하여 맥을 유지하면서 암암리에 세 확장을 꾀하였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 하에서 우익 진영에서는 당시의 충남도지사를 방문하여 경찰관을 아산군에 파견하여 주도록 요청한 바, 당시 충남도지사가 이를 수락하여 아산의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관들을 온양에 보낸다. 그러나 이 때를 같이하여 좌익 진영은 무장 인원을 동원하여 트럭을 타고 온양에 진주하는 경찰관들에게 총격을 가해 경찰관들이 온양 진입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에 우익진영은 충남도지사를 재 방문하여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무장 경찰관을 온양에 진주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이 무렵 미군이 온양지방에 들어왔다가 좌익 진영의 난동으로 일시 물러갔으나 우익 진영 무장 경찰대의 온양 진주와 일대의 자치 능력이 자리를 잡게 되자 이에 맞추어 그들도 온양에 재진주 하였다. 온양 진주에 성공한 미군은 육군병원 자리에 주둔하고, 향후 아산 일대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니 이로써 우리나라에 군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6. 한국전쟁과 온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을 빠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아산과 공주 일대의 산촌으로 피란을 해 왔다. 이 것은 정감록 비결의 영향을 받은 현상이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군이 온양 지방에 진입한 것은 동년 5월 7일로, 음봉 방면을 통해 저녁 8시경 곡교천을 지나 전차 30여대를 앞세우고 온양으로 들어왔다. 북한군 일부는 당시의 철도호텔에 주둔하였고, 그들의 전차부대는 공주의 유구면을 바라고 송악면 쪽으로 남하했다. 북한군이 온양에 진주하자 그동안 우익 진영으로부터의 요시찰 대상이 되었던 좌익 진영은 인민위원회와 보안서, 민청등의 조직을 만든 후 우익 관련 인사들과 양민들을 대거 색출해 내어 대량 학살을 자행 하였다.

이 후 온양 경찰서 청사에는 ‘온양보안서’ 라는 간판이 붙게 되면서 온양 일대는 완전한 북한군의 치하에 처해지게 되었고, 북한군은 지역내의 학교와 직장들을 통제하여 그들에게 협조하도록 강요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전쟁터로 송출했다.

온양 양조장 자리에는 북한군 소속인 군사위원회가 조직되니, 이들은 감자나 호박 등 곡식들을 현물세라는 명목으로 강제 수탈을 자행 하였는데, 부과 기준으로 참깨 알까지 헤아려대는 극성을 부리기도 하였다.

한편 각 부락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보안대를 만들어 동네 경비를 맡게 하였으며, 1950년 9월 4일에는 전 군내 일제히 인민재판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일도 있었다.

이 무렵 당시 온양중학교 교사와 남녀학생들로 구성된 지하조직 반공단체인 태극동맹 회원들의 항거를 비롯하여,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아산군내 곳곳에서는 각종형태의 지하조직체인 반공구국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들은 주로 북한군과 인민위원회 등에 붙잡힌 인사들의 구출 작업, 적의 무기고 습격, 북한군의 군사작전 방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와중에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아깝게 목숨을 잃어야 하기도 했다.

전쟁으로 인한 온양읍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시가지의 피해는 충남도내 중소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심한 정도였는 바, 이는 북한군이 온양으로 진주한 직후 UN군 폭격기의 공습을 피하고자 몇 대의 야전탱크를 지금의 용화리 소재 과수원에다 은신을 시켰는데, 한 번은 UN군의 B29 폭격기가 북쪽을 향해 온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은신처에

있던 북한군의 탱크가 발포를 하게 되었고, 이에 B29 폭격기들이 기수를 돌려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온양 일대에 폭격을 가해 결국 온양 지방 일대가 막대한 폭격의 피해를 받게 된 까닭이었다.

폭격으로 인해 당시에 있었던 큰 건물들 가운데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건물들로는 온양온천 역사와 탕정관 건물 등 몇 채 뿐이고, 그 나머지 온양온천에서 제일 컸던 신정관(철도관광호텔), 우체국 앞 통로의 중심가 일부의 모든 건물들이 모두 파괴되어 없어져 허허벌판이 되고 말았다.

그 후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온양지방에서의 반공 단체들이 때에 맞추어 표면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북한군 내무서 등을 습격하여 간부요원들을 붙잡는 등, 온양 및 아산 일대에서의 좌익 세력을 몰아내었다.

그러나 태안 지방에 주둔하던 북한군이 후퇴로를 온양으로 잡아 들어서자 상황은 돌변하였고, 좌익 부역자의 밀고를 받은 북한군은 온양 지방의 젊은 청소년들을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붙잡아 용화리 근방으로 끌고가 모조리 학살을 감행하였다. 그러자 내무서를 습격해서 무기고를 열어 무기를 입수할 수 있었던 반공 젊은이들이 학살이 있던 다음 날 대거 봉기하여 온양 지방을 통해 북으로 퇴주하던 북한군들과 맞붙어 일대 백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온양 일대는 완전한 수복을 보게되었으며 곧이어 천안을 경유한 UN군 탱크가, 온양에서 달려간 몇몇 젊은이들의 긴급 요청을 듣고 온양으로 진입하여 신창면 읍내리까지 들어와 북한 패잔병들의 온양 지방 침입을 봉쇄하는 위협작전을 편 후 다시 북진을 위해 천안으로 되돌아갔다. UN군 탱크의 작전으로 인해 온양은 예상보다 빨리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1.4 후퇴로 한 때 다시 전세가 불안해지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아산 일대에 피란을 내려왔고, 전세가 승세로 굳어지고 나서도 많은 피란민들이 서울이나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 일대에 정착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7. 5.16 군사혁명 이후의 온양

전쟁 이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온양은 다행히 온천수의 개발이 쉽게 이루어져서 전쟁 당시만 해도 3~4개에 불과했던 온천광천이 이 무렵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함으로써 현재 25개가 넘는 상황이 되었다.

그 후 온양관광협회라는 조직이 관광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온양번영회의 조직개편단행과 아산개발위원회 등이 발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또한 도고온천, 온양민속박물관 등의 많은 관광명소가 개발되고, 국내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숙박시설, 목욕시설 등이 현대화되기 시작함으로써 국내 굴지의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수차례 걸친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자립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하여 1970년대 초부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성과로 농촌의 근대화는 물론 도시에서도 새로운 의식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발전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었다.